

2022년도 국회직 한국사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④	④	②	⑤	②
6	7	8	9	10
②	⑤	④	①	③
11	12	13	14	15
③	③	①	③	②
16	17	18	19	20
⑤	①	③	②	④

1 - 구석기 시대

1. ㉠ 유물이 등장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78년 연천의 전곡리에서 ㉠이/가 처음 발견되었다. ㉠은/는 손에 쥐고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① 갈돌과 갈판을 이용하였다.
- ②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였다.
- ③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 ④ 동굴,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에서 생활하였다.
- ⑤ 다른 씨족과의 혼인을 통해 부족사회를 형성하였다.

정답> ④

'1978년 연천의 전곡리에서 ㉠이/가 처음 발견되었다. ㉠은/는 손에 쥐고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연천 전곡리'라는 표현과 '손에 쥐고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는 표현에서 주어진 '㉠'은 구석기 시대에 사용된 뿔석기의 일종인 주먹도끼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동굴,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에서 (사람들이) 생활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갈돌과 갈판을 이용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 ②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한 것 역시 신석기 시대이다.
- ③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 ⑤ 다른 씨족과의 혼인을 통해 부족 사회를 형성한 것 역시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2 - 조선 후기 노비제의 폐지 과정

2. <보기>의 내용이 발생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ㄱ. 노비추쇄법을 폐지하였다.
 - ㄴ. 일부를 제외한 공노비를 해방하였다.
 - ㄷ. 새로 태어난 노비 자녀에게 노비 세습을 금지하였다.
 - ㄹ. 노비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 ㅁ. 노비종모법이 시행되었다.

- ① ㄱ→ㄷ→ㄴ→ㄹ→ㅁ
- ② ㄱ→ㅁ→ㄴ→ㄷ→ㄹ
- ③ ㄱ→ㅁ→ㄴ→ㄹ→ㄷ
- ④ ㅁ→ㄱ→ㄴ→ㄷ→ㄹ
- ⑤ ㅁ→ㄱ→ㄷ→ㄴ→ㄹ

정답> ④

ㄱ. 노비추쇄법이 폐지된 것은 조선 정조 9년인 1785년의 일이다(1785.9)(이 해에 편찬된 『대전통편』에 반영). 참고로 노비 추쇄를 금지하기 위해 노비 추쇄관을 혁파한 것은 정조 2년인 1778년의 일이다.

ㄴ. 일부를 제외한 공노비를 해방한 것은 조선 순조 원년인 1801년의 일이다(1801.1). 내수사와 각 관방의 노비 원부[노비안]를 불태우고 공노비[내시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하였다.

ㄷ. 새로 태어난 노비 자녀에게 노비 세습을 금지한 것은 조선 고종 23년인 1886년의 일이다(1886.1).

ㄹ. (공사)노비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은 조선 고종 31년인 1894년의 일이다(1894.7).

ㅁ. (양인 인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비 종모법이 시행된 것은 조선 영조 7년인 1731년의 일이다.

이상을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ㅁ-ㄱ-ㄴ-ㄷ-ㄹ'이 된다.

3 - 초기 국가, 삼한

3. 삼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 ㄴ. 제사 의식을 주관하는 천군이 있었다.
- ㄷ. 해마다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 ㄹ. 소국의 지배자는 신지, 읍차 등으로 불렸다.
- ㅁ. 천군과 소도는 제정일치 사회임을 알려준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정답> ②

ㄱ. 신성 지역인 소도(蘇途)가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ㄴ. 제사 의식을 주관하는 천군(天君)이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ㄷ. 해마다 10월에 무천(舞天)이라는 제천 행사를 연 것은 초기 국가, 동예이다.

ㄹ. 소국의 지배자는 신지, 읍차 등으로 불렸다. 옳은 설명이다.

ㅁ. 천군과 소도는 제정일치가 아니라 제정 분리 사회임을 알려준다.

이상에서 삼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4 - 조선 성종 대의 사실

4.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대왕대비가) 전지(傳旨)하기를, “사람들이 직전(職田)의 폐단이 있다고 많이 말하기에 대신에게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대부의 봉록(俸祿)이 박하여 직전을 갑자기 혁파할 수 없다’ 하므로, 나도 또한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 들으니 조정 관원이 그 세(稅)를 지나치게 거두어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긴다 한다. ……(중략)……” 하였다.

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직전의 세(稅)는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중략)……” 하였다. 전지하기를, “직전의 세는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감독하여 거두어 주게 하고, 나쁜 쌀을 금하지 말며, 제향 아문(祭享衙門)의 관리는 금후로는 가려서 정하라”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 ① 6조 직계제를 부활시켰다.
- ② 『삼강행실도』와 『효행록』을 간행하였다.
- ③ 국가의 경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 ④ 여진을 정벌하고 4군 6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⑤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활성화하였다.

정답> ⑤

'(대왕대비가) 전지(傳旨)*하기를, 사람들이 직전(職田)의 폐단이 있다고 많이 말하기에 대신에게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대부의 봉록(俸祿)이 박하여 직전을 갑자기 혁파할 수 없다 하므로, 나도 또한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 들으니 조정 관원이 그 세(稅)를 지나치게 거두어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긴다 한다. ……(중략)……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직전의 세(稅)는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중략)…… 하였다. 전지하기를, 직전의 세는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감독하여 거두어 주게 하고, 나쁜 쌀을 금하지 말며, 제향 아문(祭享衙門)의 관리는 금후로는 가려서 정하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직전의 세(稅)는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주어진 자료는 조선 성종 원년인 1470년에 시행된 관수 관급제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전지(傳旨): 왕이나 그에 준비하는 왕실 인사가 결정한 명을 승정원이나 해당 관서의 관원을 통하여 전달하는 일 또는 그 명령서[왕명서]를 가리킨다. 왕명을 지칭할 때는 선지(宣旨)와 왕지(王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왕지와 교지(敎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왕명도 사안에 따라 승정원을 통하지 않고 전해지기도 하였다.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활성화한 것은 성종 대(재위 1469-1494, 제9대)의 일이다(1478, 성종 9).

오답 해설>

- ①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 구축을 위해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6조 직계제를 부활시킨 것은 세조 때의 일이다(1455, 세조 원년). 참고로 6조 직계제를 (처음) 실시한 것은 조선 태종 14년인 1414년의 일이다.
- ② 『삼강행실도』가 간행된 것은 세종 16년인 1434년의 일이다. 또 『효행록』을 설순 등이 개정하여 중간(重刊)한 것은 세종 10년인 1428년의 일이다. 효행록의 경우 고려 후기[충목왕 대(재위 1344-1348, 제29대) 권부와 그의 아들 권준이 역대 효행에 관한 기록을 모아 편집한 책이 있다(이제현 서문).

5 - (통일) 신라의 국학

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는 예부에 속하였는데, 신문왕 2년(682)에 설치하였다. 경덕왕이 태학감으로 고쳤으나 혜공왕이 옛 이름대로 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학업 기한은 일반적으로 9년이었다.
- ② 진골 귀족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 ③ 당의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참고하였다.
- ④ 관등이 대나마·나마에 이르면 내보냈다.
- ⑤ 박사(博士)와 조교(助教)가 교육을 담당하였다.

정답> ②

'㉠은/는 예부에 속하였는데, 신문왕 2년(682)에 설치하였다. 경덕왕이 태학감으로 고쳤으나 혜공왕이 옛 이름대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은 (통일) 신라 신문왕 2년인 682년에 설치된 국학(國學)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국학에는 대사(12관등) 이하의 경위(京位)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관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장차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입학하였다. 또 원칙적으로 왕경인만 입학할 수 있었으며, 기껏해야 소경인이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이고, 왕경인 중에서도 나마가 될 수 없는 사두품은 제외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9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나올 때는 나마(11관등)나 대나마(10관등)의 관등을 주었다. 따라서 진골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육두품이 국학 학생으로 가장 적합하였으므로 대개 육두품들이 입학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오답 해설>

- ① 국학은 15세부터 30세까지 학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9년을 기한으로 했는데 우둔해서 교화되지 않는 자는 그만두게 하고, 재기(才器)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익숙하지 못한 자는 비록 9년이 넘더라도 재학을 허락하였다.
- ③ 당의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참고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 ④ 관등이 대나마(10관등)·나마(11관등)에 이르면 내보냈다. 옳은 설명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앞서 밝혔듯이 (9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나올 때는 나마(11관등)나 대나마(10관등)의 관등을 주었다.
- ⑤ 박사(博士)와 조교(助教)가 교육을 담당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박사와 조교직은 전공별로 나누어졌으며 그 인원수는 일정하지 않았다.

4번 오답 해설>

- ③ 국가의 경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호패법을 (처음) 시행한 것은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의 일이다.
- ④ 여진을 정벌하고 4군 6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한 것은 세조 때(재위 1418-1450, 제4대)의 일이다. 최윤덕과 김종서를 통해 1433년부터 10여 년간 개척하였다(6진은 1434년부터).

6 - 담헌 홍대용

6.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편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늘에 가득한 별들이 각기 계(界) 아닌 것이 없다. 성계(星界)로부터 본다면, 지구 역시 하나의 별에 불과할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계(界)들이 공중에 흩어져 있는데, 오직 이 지구만이 공교롭게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이럴 이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계 아닌 것이 없고 자전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계에서 보는 것도 역시 지구에서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니, 다른 계에서 각기 저마다 중앙이라 한다면 각 성계(星界)가 모두 중계(中界)일 것이다.

- ①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 ② 지전설을 바탕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 ③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 ④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증하였다.
- ⑤ 『곽우록』에서 토지매매를 제한하는 한전제를 제시하였다.

정답> ②

'하늘에 가득한 별들이 각기 계(界) 아닌 것이 없다. 성계(星界)로부터 본다면, 지구 역시 하나의 별에 불과할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계(界)들이 공중에 흩어져 있는데, 오직 이 지구만이 공교롭게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이럴 이치가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렇기 때문에 계 아닌 것이 없고 자전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계에서 보는 것도 역시 지구에서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니, 다른 계에서 각기 저마다 중앙이라 한다면 각 성계(星界)가 모두 중계(中界)일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지구가 우주의 한복판(공중의 중앙)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담헌 홍대용(1731~1783)의 『의산문답』(1766, 영조 42)에 나오는 내용이다. 홍대용은 이 책에서 지구구형설과 함께 지전설, 무한우주론 등을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인물은 연암 박지원(1737~1805)이다(저술 연대 미상).
- ③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한 인물은 농암 유수원(1694~1755)이다(1729~1737 집필 추정).
- ④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증한 인물은 추사 김정희(1786~1856)이다. 김정희는 금석문에 관한 저술인 『금석과안록』에서 신라 진흥왕의 북한산 순수비와 황초령 순수비를 판독·해설하여 고증하였다(철종 3, 1852).
- ⑤ 『곽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제(限田論)를 제시한 인물은 성호 이익(1681~1763)이다(저술 연대 미상). 이익은 자영농의 몰락을 막기 위하여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자 매매 불가능한 영업전을 설정(할당)하였다(일종의 '토지 소유의 하한선' 제시).

*곽우록의 뜻: 재야에 있는 평민은 국가의 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지만, 국가 정책이 잘못되면 백성이 직접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 수 없어 분수에 넘치는 안을 제시하는 '천민의 걱정'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7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7.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는 우리 동포의 열렬한 성원과 기대 속에 16일에는 경성중앙방송국을 통하여 준비위원의 자격으로 안재홍 씨가 마이크를 통하여 해방될 우리 민족에게 제1성을 보내었다.

- 『매일신보』 -

- ① 8·15 해방 이전에 결성되었다.
- ② '결정적 시기의 무장봉기' 전술을 구상하였다.
- ③ 노농군 편성을 목적으로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④ 강령에서 조선민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 ⑤ 미군 진주 시까지 치안 유지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정답> ⑤

'㉠은/는 우리 동포의 열렬한 성원과 기대 속에 16일에는 경성 중앙 방송국을 통하여 준비위원의 자격으로 안재홍 씨가 마이크를 통하여 해방될 우리 민족에게 제1성을 보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은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줄여서 '건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미군 진주 시까지 치안 유지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에 결성되었다.
- ② (광범위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전술과 더불어) '결정적 시기의 무장봉기' 전술을 구상한 것은 사회주의자들[조선 공산당 재건 운동을 포함한 공산주의 그룹]이다.
- ③ 노농군 편성을 목적으로 군사 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건국 동맹이다(1944.8).
- ④ 강령에서 조선 민주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운 것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 1941년 11월에 제정된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참고로 조선 독립 동맹과 건국 동맹도 조선 민주 공화국 건설을 위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각 1942.7/1944.8).

8 -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안

8. (가)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945년 12월 (가) 결정을 둘러싸고 좌우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즉,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우익과 (가) 결정안에 찬성한 좌익이 대립하게 되어 결국 자주 독립의 통일 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채 민족 분단의 길로 가게 되었다.

————— <보 기> —————
 ㄱ. 미·소 공동위원회의 설치
 ㄴ. 임시 민주주의 정부의 수립
 ㄷ.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의 반동 세력 박멸
 ㄹ. 미·소 공동위원회와 임시정부는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 협정 작성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④

'1945년 12월 (가) 결정을 둘러싸고 좌우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즉,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우익과 (가) 결정안에 찬성한 좌익이 대립하게 되어 결국 자주 독립의 통일 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채 민족 분단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모스크바 3상 회의를 가리 킴을 알 수 있다(1945.12).

ㄱ.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모스크 바 3상 회의 결정문(총 4항목으로 구성)의 두 번째 항목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ㄴ. 임시 민주주의 정부의 수립 역시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문의 첫 번째 항목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ㄷ.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의 반동 세 력 박멸과 관련된 내용은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문에 들어가 있지 않다.
 ㄹ. 미·소 공동 위원회와 임시 정부가 최고 5년 간 의 신탁 통치 협정 작성은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문의 세 번째 항목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이상의 <보기>에서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문에 해 당하는 것은 'ㄱ, ㄴ, ㄹ'이다.

9 - 삼포 왜란

9.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대마도) 도주에게는 해마다 쌀과 콩을 합하여 200석을 주기로 하였다. 세견선은 50척으로 하였다.

(나) 도주 세견선을 25척으로 감하고, 도주에게 내려준 세사미두 200석 중에 100석을 감하였다.

- ①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 ② 을묘왜변이 발발하였다.
- ③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다.
- ④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다.
- ⑤ 일본에 회답겸쇄환사가 파견되었다.

정답> ①

(가)에 '(대마도) 도주에게는 해마다 쌀과 콩을 합하 여 200석을 주기로 하였다. 세견선은 50척으로 하 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약조 는 (조선이 왜의 제한된 조공 무역을 허락하여) 세 종 25년인 1443년에 맺은 계해약조이다. (나)에는 ' 도주 세견선을 25척으로 감하고, 도주에게 내려준 세사미두 200석 중에 100석을 감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무역량을 반으로 줄인 이와 같은 내용의 약조는 중종 7년인 1512년에 맺은 임신약조이다. 삼포 왜란이 일어난 것은 중종 5년인 1510년의 일 이다. 임신약조가 맺어진 배경이기도 하다.

오답 해설>

- ② 을묘왜변이 발발한 것은 명종 10년인 1555년의 일이다. 조선과 왜 사이에 국교가 단절되고, 비변사 가 상설 기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이 체결된 것은 고 종 13년인 1876년의 일이다.
- ④ 청과 국경선을 정하고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것은 숙종 38년인 1712년의 일이다.
- ⑤ '회답 겸 쇄환사'란 '일본에서 보낸 국서에 회답 국서를 전하고 피로인을 쇄환하기 위해 파견한 사절 '이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이후 단절된 국교를 회복 하고자 일본의 요청으로 파견된 사신 일행을 가리키 는 말이다. 1607년(선조 40) 정사(正使) 여우길 일 행이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일본에 파견 되었고, 이후 1617년(광해군 9)과 1624년(인조 2) 두 차례 더 파견된 적이 있다[인조 14년(1636)에 이 르러 통신사라는 칭호를 다시 사용].

10 - 조선 영조 시기의 사실

10. 밑줄 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은 임금의 신민의 부모와 같다는 군부일체론(君父一體論)을 강조하였으며, 당파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어느 당파이든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여 왕권에 순종시키는 데에 주력하였다. 또한, 기유처분(己酉處分)으로 노·소론 내 온건론자들을 고르게 등용해 초기의 탕평책의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이때 인사정책으로 쌍거호대(雙擧互對)의 방식을 취하였다.

- ①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 ② 창덕궁 안에 대보단을 설치하였다.
- ③ 재야 산림의 공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④ 대유둔전이라는 국영농장을 설치하였다.
- ⑤ 관료의 재교육을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정답> ③

'왕은 임금의 신민의 부모와 같다는 군부일체론(君父一體論)을 강조하였으며, 당파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어느 당파이든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여 왕권에 순종시키는 데에 주력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또한, 기유처분(己酉處分)*으로 노·소론 내 온건론자들을 고르게 등용해 초기의 탕평책의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이때 인사 정책으로 쌍거호대(雙擧互對)의 방식**을 취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친 '왕'은 조선의 제21대 국왕인 영조(재위 1724~1776)임을 알 수 있다.

*기유처분: 1729년(영조 5)에 경종 연간에 발생한 신임옥사를 둘러싼 노론과 소론의 정치 의리를 절충하여 처분을 내린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전년도(1728)에 발생한 이인좌의 난 이후 영조가 각 붕당 모두에 역적과 충신이 있으므로 붕당을 타파하고 각 붕당의 인재를 고루 사용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다.

**쌍거호대의 방식: 주요 관직에 각 당의 인사를 분배하여 배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조(吏曹)의 경우 이조 판서에 노론을 임명하면, 이조 참판에는 소론을 임명하고, 이조 참의에 노론을, 그리고 전랑에 소론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영조는 탕평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재야 산림의 공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효종 대(재위 1649~1659. 제17대)와 숙종 대(재위 1674~1720, 제19대)이다(각 충청도와 전라도/경상도와 황해도).
- ② 창덕궁 안에 대보단이 설치된 것은 숙종 30년인 1704년의 일이다.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명 신종의 은혜, 즉 재조지은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 ④ 대유둔전이라는 국영 농장이 설치된 것은 정조 19년인 1795년의 일이다. 대유둔전을 설치한 것은 수원 화성을 수리하는 데 드는 재물과 인력 때문이다.
- ⑤ 관료의 재교육을 위해 초계문신제가 시행된 것은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다.

11 - 해상왕 장보고

10. 밑줄 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은 임금의 신민의 부모와 같다는 군부일체론(君父一體論)을 강조하였으며, 당파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어느 당파이든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여 왕권에 순종시키는 데에 주력하였다. 또한, 기유처분(己酉處分)으로 노·소론 내 온건론자들을 고르게 등용해 초기의 탕평책의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이때 인사정책으로 쌍거호대(雙擧互對)의 방식을 취하였다.

- ①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 ② 창덕궁 안에 대보단을 설치하였다.
- ③ 재야 산림의 공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④ 대유둔전이라는 국영농장을 설치하였다.
- ⑤ 관료의 재교육을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정답> ③

위의 자료에 '이른 아침에 신라인이 작은 배를 타고 왔다. 문득 듣건대, ㉠이/가 신라 왕자와 공모하여 신라국을 징벌하고 곧 그 왕자를 신라국의 왕으로 삼았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아래의 자료에는 '산 속에 절이 있어 그 이름은 적산법화원인데, 이는 ㉡이/가 처음 세운 것이다. 오랫동안 장전(莊田)*을 갖고 있어 양식을 충당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출처가 일본 헤이안 시대의 승려인 엔닌(794~864)의 여행기인 『입당구법순례행기』이다(838년에서 847년, 9년간 당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면서 기록). 이를 통해 주어진 ㉠은 (통일) 신라의 해상왕 장보고(?~846)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장전(莊田): 여기서는 적산법화원의 사유지인 장원(莊園)에 딸린 논과 밭을 가리킨다.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세우고 당과 일본 간의 무역을 독점하였다. 당에 교역 사절(상인들)인 회역사, 견당매물사와 무역선인 교관선을 보냈다[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오답 해설>

- ① 진성 여왕(재위 8870897, 제51대)에게 시무책 10여조를 바친 인물은 도당 유학생 출신인 고운 최치원(857~?)이다.
- ② (6두품 출신으로) 당에 건너가 빈공과에 합격한 신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이다(그 외 최승우, 최언위 등). 빈공과는 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제로 장보고가 빈공과에 합격한 적은 없다.
- ④ 웅천주(지금의 충남 공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키고 장안(長安)이라는 나라를 세운 인물은 김헌창(?~822)이다(김헌창의 난, 822)(연호 경운). 당시 김헌창은 웅천주의 도독이었다.
- ⑤ 독자적으로 오월과 거란, 후당, 일본 등에 사신을 보낸 인물은 후백제의 시조 견훤(재위 892~936)이다.

12 - 면암 최익현의 활동

12. <보기>의 상소를 올린 인물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적들이 욕심내는 것은 물화(物貨)를 교역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들의 물화는 대부분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기이한 노리개로,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한정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의 물화는 대부분 백성의 생명이 달린 것으로 땅에서 생산되어 한정이 있습니다. 이같이 피와 살이 되어 백성의 목숨이 걸려 있는 유한한 물화를 가지고 저들의 사치스럽고 기이하며 마음을 졸먹고 풍속을 해치는 물화와 교환한다면, 해마다 그 양이 수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동토(東土) 수천 리에 전답은 황폐해지고 집은 다 쓰러져 다시 보존하지 못하게 되고, 나라도 반드시 뒤따라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가 난리와 멸망을 부르는 까닭의 둘째 이유입니다.

- ① 대마도에서 옥중 순국하였다.
- ② 전북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 ③ 연해주에서 13도 의군을 결성하여 도총제로 추대되었다.
- ④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자 국정 개혁을 위한 상소를 올려 흥선대원군을 비판하였다.
- ⑤ 「청토오적소(請討五賊疏)」를 올려 을사조약 파기와 매국 오적 처단을 주장하였다.

정답> ③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적들이 욕심내는 것은 물화(物貨)를 교역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들의 물화는 대부분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기이한 노리개로,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한정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의 물화는 대부분 백성의 생명이 달린 것으로 땅에서 생산되어 한정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같이 피와 살이 되어 백성의 목숨이 걸려 있는 유한한 물화를 가지고 저들의 사치스럽고 기이하며 마음을 졸먹고 풍속을 해치는 물화와 교환한다면, 해마다 그 양이 수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동토(東土) 수천 리에 전답은 황폐해지고 집은 다 쓰러져 다시 보존하지 못하게 되고, 나라도 반드시 뒤따라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가 난리와 멸망을 부르는 까닭의 둘째 이유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유명한 면암 최익현(1833~1906)의 '병자지부복결소'이다(1876.1). 강화도 조약 체결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당시 최익현은 다섯 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주어진 자료는 두 번째 이유).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에서 13도 의군이 결성되어 도총제로 추대된 인물은 의암 유인석(1842~1915)이다(1910.6).

오답 해설>

- ① 최익현은 대마도에서 옥중 순국하였다(1906.11). 옳은 설명이다.
- ② 최익현은 전북 (정읍) 태인의 무성 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켰다(1906.6). 옳은 설명이다.
- ④ 최익현은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자 국정 개혁을 위한 상소를 올려 흥선 대원군을 비판하였다(1868). 이른바 '무진소(戊辰疏)'로, 토목 공사 중지, 수탈 정책 중지, 당백전 철폐, 사문세(四門稅)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최익현은 「청토오적소(請討五賊疏)」를 올려 을사조약 파기와 매국 오적 처단을 주장하였다(1905.11). 옳은 설명이다.

13 - 원묘국사 요세

13. 밑줄 친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자년 여름 5월 유생 여러 명이 개경에서 내려와 뵈니 대사가 제자로 받아들여 머리를 깎고 『묘법연화경』을 가르쳐 통달하게 하였다. 임진년 4월 8일 대사가 처음 보현도량을 결성하고 법화삼매를 수행하여,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였는데, 모두 천태삼매의(天台三昧儀)를 그대로 따랐다. 오랫동안 법화참(法華懺)을 수행하고 전후에 권하여 발심(發心)시켜 이 경을 외우도록 하여 외운 자가 1천여 명이나 되었다.

- ① 백련결사를 주도하였다.
- ② 『천태사교의』를 저술하였다.
- ③ 정혜쌍수를 교리로 강조하였다.
- ④ 귀법사의 초대 주지를 역임하였다.
- ⑤ 광종 시기 불교 개혁을 주도하였다.

정답> ①

'무자년 여름 8월 유생 여러 명이 개경에서 내려와 뵈니 대사가 제자로 받아들여 머리를 깎고 『묘법연화경』을 가르쳐 통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임진년 4월 8일 대사가 처음 보현도량을 결성하고 법화삼매를 수행하여,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였는데, 모두 천태삼매의(天台三昧儀)를 그대로 따랐다. 오랫동안 법화참(法華懺)을 수행하고 전후에 권하여 발심(發心)시켜 이 경을 외우도록 하여 외운 자가 1천여 명이나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자료로, 주어진 자료는 원묘국사 요세(1163~1245)와 관련되어 있다. 자료에서 무자년은 1228년(고종 15)이다.

요세는 전남 강진 만덕사에서 백련결사를 조직하였다[보현도량 개설]. 요세는 참회와 수행에 중점을 두는 등 복잡한 이론보다 종교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오답 해설>

- ② 『천태사교의』를 저술한 승려는 제관(?~970)이다. 제관(諦觀)이라고도 한다.
- ③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교리로 강조한 승려는 (불일)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다.
- ④ 귀법사의 초대 주지를 역임한 승려는 균여(923~973)이다(963, 광종 14).
- ⑤ 광종 시기 불교 개혁을 주도한 승려 역시 균여이다.

14 - 익제[역웅] 이제현

14.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편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들으니 원나라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행정(行省)을 설치하여 중국의 다른 지방과 같은 행정 구역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공로는 막론하고라도 세조(世祖) 황제의 조서(詔書)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중략)..... 폐하의 조서는 실로 온 세상 사람의 복인데 유독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세조 황제의 조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략).....
- 『고려사』 -

- ① 국학 진흥을 위해 첨학전을 설치하였다.
- ② 9재 학당을 건립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
- ③ 원의 수도에 세워진 만권당에서 활동하였다.
- ④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수록하였다.
- ⑤ 성리학을 연구하여 '동방 이학(理學)의 조(祖)'라고 불렸다.

정답> ③

'지금 들으니 원나라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행정(行省)을 설치하여 중국과 다른 지방과 같은 행정 구역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공로는 막론하고라도 세조(世祖) 황제의 조서(詔書)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폐하의 조서는 실로 온 세상 사람의 복인데 유독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세조 황제의 조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사료로, 몽골이 고려를 중국 내의 행정 중 하나로 종속시키고 고려의 백성들을 원의 군민(軍民)으로 삼으려 하자, 이를 반대하여 익제[역웅] 이제현(1287~1367)이 고려가 독립 국가임을 주장하며 반대하여 올린 글이다(이른바 '입성 반대 상서')(1320, 고려 충숙왕 7).

이제현은 원의 수도에 세워진 만권당에서 활동하였다. 만권당이 만들어진 것은 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이 일이다. 당시 충선왕은 아들인 충숙왕에게 선양한 후 원에 만권당을 설치하여 고려의 학자들을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국학 진흥을 위해 첨학전을 설치한 것은 고려 충렬왕 3년인 1304년의 일이다.
- ② 9재 학당(문헌공도)을 건립하여 후진을 양성한 것은 최충(984~1068)이다(1055, 고려 문종 9).
- ④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수록한 것은 보각국사 일연(1206~1289)이다(1285, 고려 충렬왕 11).
- ⑤ 성리학을 연구하여 '동방 이학(理學)의 조(祖)'라고 불린 이는 포은 정몽주(1337~1392)이다.

15번 해설

ㄹ. 불교의 전륜성왕 이념을 이용해 왕건 강화를 도모한 것은 발해 문왕(재위 737~793)이다(황상이라는 칭호도 사용). 전륜성왕은 인도 신화와 불교에서 이상적인 왕(제왕)을 칭하는 말이다. 참고로 발해 문왕 외에 신라 진흥왕과 백제 무왕도 자신을 스스로 전륜성왕이라 칭한 바 있다.

이상에서 발해 무왕의 활동이 아닌 것은 'ㄱ과 ㄴ'이다(발해 무왕의 활동).

15 - 발해 무왕의 활동

15.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인일에 일본 천황이 중궁에 나갔는데, 발해 사신 고제덕 등이 (가)의 교서와 방물을 바쳤다.(중략)..... "(가)은/는 대국(大國)을 맡아 외람되게 여러 번(蕃)을 함부로 총괄하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멀리 길이 막히고 끊어졌습니다. 어진 이와 가까이하며 우호를 맺고 옛날의 예에 맞추어 사신을 보내어 이웃을 찾는 것이 오늘에야 비롯하게 되었습니다"(하략)..... 발해 사신 고제덕 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활쏘기 대회와 아악료(雅樂寮)의 음악을 내렸다.
- 『속일본기』 -

- 『속일본기』 -

<보 기>

- ㄱ. 수도를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옮겼다.
- ㄴ. 대문예로 하여금 흑수말갈을 공격하게 하였다.
- ㄷ. 산둥지방의 덩저우에 수군을 보내어 당을 공격하였다.
- ㄹ. 불교의 전륜성왕 이념을 이용해 왕건강화를 도모하였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갑인일에 일본 천황이 중궁에 나갔는데, 발해 사신 고제덕 등이 (가)의 교서와 방물을 바쳤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은/는 대국(大國)을 맡아 외람되게 여러 번(蕃)을 함부로 총괄하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멀리 길이 막히고 끊어졌습니다. 어진 이와 가까이하며 우호를 맺고 옛날의 예에 맞추어 사신을 보내어 이웃을 찾는 것이 오늘에야 비롯하게 되었습니다.(하략)..... 발해 사신 고제덕 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활쏘기 대회와 아악료(雅樂寮)의 음악을 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자료로, 주어진 자료는 발해의 제2대 국왕인 무왕(재위 719~737, 대문예)이 재위 9년인 727년에 일본 왕에게 보낸 국서이다. 당시 발해는 신라와 당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정세를 벗어나고자 일본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자 시도하였다.

ㄱ. 수도를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옮긴 것은 발해 문왕 때의 일이다(756, 문왕 20)*.

*발해의 첫 도읍지는 동모산(지린성 돈화시)이다. 무왕 시기(재위 719~737, 제2대)에 동모산에서 중경 현덕부(지린성 화룡현)로 처음 도읍을 옮겼고[문왕 시기(재위 737~793, 제3대)로 보는 설도 있음], 문왕 20년인 756년경에 북쪽의 상경 용천부(헤이룽장성 영안현)로 다시 도읍을 옮겼다. 그 후 문왕 49년인 785년경에 동경 용원부(지린성 훈춘시)로 다시 수도를 옮겼다가 성왕 대(재위 793~794, 제5대)에 상경 용천부로 '환도'하였다(793년으로 추정).

ㄴ. (발해 무왕의 친아우인) 대문예로 하여금 흑수말갈을 공격하게 한 것은 발해 무왕 8년인 726년의 일이다.

ㄷ. 산둥지방의 덩저우에 수군을 보내어 당을 공격한 것은 발해 무왕 14년인 732년의 일이다.

16 - 일제 강점기 말의 사실

16. (가)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	↑	↑	
중일전쟁 발발	진주만 기습	조국의 광복	

- ① (가) - 국가총동원법 제정
- ② (가) - 가격 등 통제령 제정
- ③ (나) - 학도지원병제 실시
- ④ (나) - 여자정신대근로령 공포
- ⑤ (나) -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

정답> ⑤

연표에서 중일 전쟁이 발발한 것은 1937년 7월의 일이다. 일제가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한 것은 1941년 12월의 일이며, 우리나라가 광복한 것은 1945년 8월이다(8·15 광복).

육군 특별 지원병령이 공포된 것은 1938년 10월의 일이다['(가) 시기'에 해당].

오답 해설>

- ①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된 것은 1938년 4월의 일이다.
- ② (상인의 폭리 행위와 투기적 모리배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가격 등 통제령이 제정된 것은 1939년 9월의 일이다.
- ③ 학도 지원병제가 실시된 것은 1943년 10월의 일이다. 참고로 강제적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이듬해인 1944년 4월이다.
- ④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공포된 것은 1944년 8월의 일이다.

17번 오답 해설>

- ③ 조선 총독부 총독(우가키 가즈시게)을 저격하고자 계획했으나 사전에 체포되어 실패한 이덕주(1908~1935)는 한인 애국단원이었다[1932년 4월에 체포, 상하이에서 유진만(1912~1966)과 함께 귀국].
- ④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성공하지 못한 이봉창(1901~1932) 역시 한인 애국단원이었다.
- ⑤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왕 탄생 축하 행사 겸 전승 축하식장에 폭탄을 던진 윤봉길(1908~1932)도 한인 애국단원이었다.

17 - 한인 애국단의 활동

17. ㉠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는 이에 제1차의 전쟁사를 세상에 공개하노니 이는 결코 과장의 의미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또한 이것을 선전의 재료로 삼자는 바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피력하여 한국 삼천만 인민이 모든 굴욕을 받으며 분투해 온 간난신고를 읊소하여 세간의 인도주의자들의 공론을 구하고, 아울러 이로써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중화민족에게 다소나마 참고와 도움이 된다면 다행일 뿐이다.(중략)....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한국을 위하여 광복을 꾀하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중국을 구해야 하고, 중국을 위하여 광복을 꾀함에도 한국은 또한 중국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입이 닳도록 애원하며 우리 한·중 양국 동지에게 다 같이 각성하여 전장에 목숨을 함께 바치자는 까닭이다.

- ① 김지섭이 일왕의 궁성으로 들어가는 니주바시에 폭탄을 던졌다.
- ② 상하이사변 직후 일본 이즈모호를 폭파하기로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③ 이덕주는 조선총독부 총독을 저격하고자 계획했으나 사전에 체포되어 실패하였다.
- ④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 ⑤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왕 탄생 축하 행사 겸 전승 축하식장에 폭탄을 던졌다.

정답> ①

'㉠은/는 이에 제1차의 전쟁사를 세상에 공개하노니 이는 결코 과장의 의미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또한 이것을 선전의 재료로 삼자는 바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피력하여 한국 삼천만 인민이 모든 굴욕을 받으며 분투해 온 간난신고를 읊소하여 세간의 인도주의자들의 공론을 구하고, 아울러 이로써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중화민족에게 다소나마 참고와 도움이 된다면 다행일 뿐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한국을 위하여 광복을 꾀하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중국을 구해야 하고, 중국을 위하여 광복을 꾀함에도 한국은 또한 중국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입이 닳도록 애원하며 우리 한·중 양국 동지에게 다 같이 각성하여 전장에 목숨을 함께 바치자는 까닭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자료로, 백범 김구(1876~1949)가 1932년 12월 출간한 『도왜실기』(백범일지)의 중국어 초판에 쓴 서문이다. 일본의 궁성으로 들어가는 니주바시에 폭탄을 던진 김지섭(1884~1928)은 의열단원이었다(1924.1).

오답 해설>

- ② 상하이 사변 직후 일본 이즈모호를 폭파하기로 하였으나 실패하였다(1932.2). 중국인 잠수부들을 고용, 상하이 주둔 일본군 사령부의 이즈모호를 폭파하고자 하였으나 배 밑에 폭탄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머뭇거리다가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18 - 신민회

18. ㉠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위는 천지의 신에게 묻고 아래로는 동포형제와 상의하여 드디어 하나의 모임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발기한다. 그 이름을 ㉠이라고/이라고 한다. ㉠은/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완고하고 부패한 국민 생활을 개혁할 새로운 사상이 시급히 필요하며, 우둔한 국민을 깨우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고, 식어 버린 뜨거운 마음을 다시 살리기 위해 새로운 제창이 시급히 필요하며, 쇠약해진 원기를 북돋울 새로운 보양이 시급히 필요하고, 타락한 도덕을 되살릴 새로운 윤리가 시급히 필요하며, 쇠퇴한 문화를 부흥시킬 새로운 학술이 시급히 필요하고, 미약한 산업을 일으킬 새로운 모범이 시급히 필요하며, 부패한 정치를 일신할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 ① 외곽단체로 청년학우회를 만들었다.
- ②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 ③ 기관지로 잡지 『서우』를 간행하였다.
- ④ 자기회사, 소방직공장, 소연초공장 등을 설립하였다.
- ⑤ 학술 간행 단체인 조선광문회와 서점인 태극서관을 만들었다.

정답> ③

'여기에서 위는 천지의 신에게 묻고 아래로는 동포형제와 상의하여 드디어 하나의 모임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발기한다. 그 이름을 ㉠이라고/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은/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완고하고 부패한 국민 생활을 개혁할 새로운 사상이 시급히 필요하며, 우둔한 국민을 깨우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고, 식어 버린 뜨거운 마음을 다시 살리기 위해 새로운 제창이 시급히 필요하며, 쇠약해진 원기를 북돋울 새로운 보양이 시급히 필요하고, 타락한 도덕을 되살릴 새로운 윤리가 시급히 필요하며, 쇠퇴한 문화를 부흥시킬 새로운 학술이 시급히 필요하고, 미약한 산업을 일으킬 새로운 모범이 시급히 필요하며, 부패한 정치를 일신할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자료로, '새로운'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주어진 자료 속 ㉠은 1907년 4월에 비밀리에 결사된 '신민회'를 가리킨다(주어진 자료는 '신민회 결성 취지문' 중 일부). 기관지로 잡지 『서우(西友)』를 간행한 단체는 서우 학회이다(1906.12). 서우 학회는 1908년 1월에 서북 학회로 발전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신민회는 외곽 단체로 (서울에서) 청년 학우회를 만들었다(1909.2). 옳은 설명이다.
- ② 대성 학교, 오산 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옳은 설명이다(각 1908.9/1907.12).
- ④ 자기 회사, 소방직 공장, 소연초 공장 등을 설립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평양 자기 제조 주식회사가 대표적이다(1908.10).
- ⑤ 학술 간행 단체인 조선 광문회와 서점인 태극서관을 만들었다. 옳은 설명이다(각 1910.10/1908.5).

19 - 고려의 정방

19. ㉠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우가 자신의 집에 ㉠을/를 두고 백관의 인사를 다루었는데 문사를 뽑아 이에 속하게 하고 필자적(必者赤)이라 불렀다. 옛 제도에는 이부는 문신 인사를, 병부는 무신 인사를 관장하였는데, 근무 연한의 순서를 정하여 관리의 근면함과 태만함, 공과, 재능이 있고 없음을 논한 후 모두 문서에 기재한 것을 정안(政案)이라 하였다. ……(중략)…… 정권을 마음대로 하면서부터 관부와 관료를 두고 사사로이 정안을 취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다.

- 「고려사」 -

- ① 을묘왜변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 ② 공민왕의 개혁으로 일시 폐지되었다.
- ③ 간쟁, 서경, 봉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④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 ⑤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며 조정에 대항하였다.

정답> ②

'최우가 자신의 집에 ㉠을/를 두고 백관의 인사를 다루었는데 문사를 뽑아 이에 속하게 하고 필자적(必者赤)이라 불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옛 제도에는 이부는 문신 인사를, 병부는 무신 인사를 관장하였는데, 근무 연한의 순서를 정하여 관리의 근면함과 태만함, 공과, 재능이 있고 없음을 논한 후 모든 문서에 기재한 것을 정안(政案)이라 하였다. ……(중략)…… 정권을 마음대로 하면서부터 관부와 관료를 두고 사사로이 정안을 취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주어진 자료 속 ㉠은 곧 최우가 독자적인 인사 행정 기구로 설치한 '정방'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225, 고려 고종 12).

정방은 공민왕의 개혁으로 일시 폐지되었다(1356, 공민왕 5). 옳은 설명이다. 정방은 사실 충선왕과 충목왕 때도 폐지되었다가 다시 설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방이 최종적으로 폐지된 것은 고려 창왕 즉위년인 1388년의 일이다(상서사 설치).

오답 해설>

- ①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된 기구로는 비변사가 있다(1555, 조선 명종 10). 비변사는 원래 3포 왜란 때 임시 군무 협의 기구로 처음 설치되었다(1510, 중종 5).
- ③ 간쟁, 서경, 봉박의 업무를 담당한 기구는 고려의 '대간(臺諫)'이다. 중서문하선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이 함께 대간(臺諫)을 이루어 간쟁*, 서경**, 봉박***과 같은 언론 기능을 행하였다(왕권 견제).
- *간쟁(권): 왕의 잘못을 직언할 수 있는 권리
- **서경(권):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개폐에 동의할 권리
- ***봉박(권): 잘못된 왕명을 돌려보낼 수 있는 권리
- ④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뀐 기구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는 국방 회의 기구인) 도병마사이다.
- ⑤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며 조정에 대항한 기구는 삼별초이다(1232~1273).

20 - 4·19 혁명

19. ㉠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우가 자신의 집에 ㉠을/를 두고 백관의 인사를 다루었는데 문사를 뽑아 이에 속하게 하고 필자적(必者赤)이라 불렀다. 옛 제도에는 이부는 문신 인사들, 병부는 무신 인사를 관장하였는데, 근무·연한의 순서를 정하여 관리의 근면함과 태만함, 공과, 재능이 있고 없음을 논한 후 모두 문서에 기재한 것을 정안(政案)이라 하였다. ……(중략)…… 정권을 마음대로 하면서부터 관부와 관료를 두고 사사로이 정안을 취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다.

- 「고려사」 -

- ① 을묘왜변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 ② 공민왕의 개혁으로 일시 폐지되었다.
- ③ 간쟁, 서경, 봉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④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 ⑤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며 조정에 대항하였다.

정답> ④

'11일 상오 11시 30분경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오른쪽 눈에 파편이 박힌 17, 8세의 학생풍 변사체가 발견되어, 3·15 사건 이후 행방불명자를 못 찾고 있던 당시 시민들을 긴장시켰다. 시체는 낚시꾼에 의하여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된 것인데 ……'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1960년에 일어난 4·19 혁명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19 혁명은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3월 15일 시행, 부통령 선거는 사실 제5대에 해당)에서 이승만 정부가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오답 해설>

- ① 한·일 학생 간 충돌에서 비롯된 사건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1929.11~1930.3).
- ②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에서 비롯된 사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1980.5).
- ③ 사사오입 개헌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1954년 11월의 일이다.
- 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학생,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던 것은 6월 민주 항쟁이다(1987.6).

- 이 상 -